



## Run For Fun!

노

조

2

3

대

자

행

부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2년 거리에서 울려 퍼졌던 함성을 말이죠. 그 열기는 결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재미있어서' 목청껏 응원했고, 그 순간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은 마치 쌀밥처럼, 우리에게 움직일 힘을 줍니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10분도 버티기 어려운 일이지만 즐거움은 스스로 움직이게 하니깐요.

23대 CBS 노조집행부는 자발적 몰입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첫걸음이 임금 인상이었고,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던 본조 노조 휴게실 개선과 당 총전을 위한 간식 구비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조합원이 웃을 수 있어야 방송도, 조직도 건강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이 늘 즐거울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방송인'입니다. 재미와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산자가 웃지 않는데, 소비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콘텐츠와 메시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23대 노조는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그러나 CBS 조합원들의 '재미'를 향한 질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뻔하지 않은 이야기, 색다른 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과 연대가 있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마라토너가 일정한 고통을 넘어선 순간 느끼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일터에서 그런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3대 노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함께라면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습니다. CBS의 마이크는 조합원의 목소리로, CBS의 펜은 조합원의 시선으로, 세상을 더 재밌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여정이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주자들과 함께 더 큰 재미를 향해 달려가세요. 옆에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Run for fun.** 즐거움을 향해,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갑시다.



# 제24대 노조위원장 선거

4/29(화) 오전 9시 - 오후 6시 찬반투표(전자) 실시

## 기술국 장상원 조합원 단독 입후보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4일(월)까지 제24대 노조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서울 기술국 장상원 조합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29일(화)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실시합니다.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서 당선이 확정되며 투표가 끝난 후 당선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4대 노조의 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한표한표가 CBS 미래를 만드는 강한 노조 건설의 주춧돌임을 기억하시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상원 1980.01

#### <업무 경력>

2005. 12월 공채 26기 엔지니어 입사  
2008. 10월 기술연구소 근무  
- 방송시스템 개선 위해 13개 지역본부 최소 50회 이상 방문  
2014.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 우수상 수상  
2017 ~ 2018 제25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감사 역임  
2018.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 최우수상 수상  
현재 서울 기술국 정보시스템부(부장 대우)

#### <노동조합 경력>

2013 ~ 2014 : 18대 노보편집위원  
2020. 6월 ~ 2021. 5월 : 21대 노조 부위원장  
2021. 6월 ~ : 22대, 23대 노조 수석 부위원장(現)

## 제24대 노동조합 위원장 투표안내

2025년 4월 29일(화) 09:00~18:00 모바일 투표

-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휴대폰 문자로 투표 링크가 발송됩니다. 투표 당일 투표 링크를 수신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선관위(02-7650-7392)로 연락주십시오.
- 노조 위원장 선거 공고일(4/7, 월) 기준 휴직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투표 링크를 수신할 수 없는 해외 특파원·연수자는 '사고'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험과 신뢰, 그리고 변화”

사랑하는 CBS 조합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05년 입사 이후 줄곧 CBS의 현장을 지키며, 동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걸어온 장상원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노조 부위원장으로 5년 간 활동했고, 그 중 4년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지내며 CBS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노동이 지닌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CBS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금 CBS는 크고 작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조직 내부의 피로감과 단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합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CBS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 1.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CBS 노동조합의 진정한 힘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조 활동은 때때로 상위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며, 조합원과의 거리가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노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노조원들, 현장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2. CBS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CBS는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CBS다움’을 지키기 위해, 사측과의 모든 협상에서 CBS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며,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3. 사측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강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조직입니다. 앞서 노조 성명 ‘몰상식한 성과급 지급에 분노한다’에서 보았듯이 회사에는 확실한 견제가 꼭 필요합니다. 신입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하고, 사측의 인사와 경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에 단호히 대응하는 강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CBS의 가치와 구성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력 있는 견제를 하겠습니다.

### 4.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복지와 처우는 결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측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구조, 현실이라는 핑계로 정당한 대가를 외면하는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일하는 만큼 보상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늘 곁에 있는 노조,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 5.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합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변화의 물결 앞에서 CBS도, 조합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제도 개선, 신입 직원과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합은 과거를 지키는 울타리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CBS는 단순한 방송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닌 공동체이며, 이 땅에 정의와 희망을 전하는 언론인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며 함께 걸어온 우리, 이제는 더 단단한 연대와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가장 멀리까지 전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싸우되, 그저 싸우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CBS를 지키고, 구성원을 지키고, 희망을 지키는 그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한 징계에 맞서다"... 김중호 CBS위원장, 2년의 기록

"주인 없는 회사, 노조 관심만이 힘"

연대의 힘...조합원과 함께 이룬 성과

임금 현실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투자

23대 CBS 노동조합 집행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끊임없이 제기된 외부의 부당한 압력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권익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김중호 위원장은 선방심의위의 잇단 징계 등 대외적 갈등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도 조직 내부의 안정과 단결을 이끌어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위원장을 노조 새 내기 하효진 조합원이 만나 지난 2년간의 치열했던 투쟁과 성과, 그리고 CBS 노동조합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 Q.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이 궁금하다.

군대 두 번째 제대하는 기분이다. 쉽지 않았다. 23년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가 시작됐다. 보통 미디어 관련 이슈는 정권 초기에 대부분 마무리되는데, 묘하게도 윤석열 정부 2~3년 차부터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다. 방심위원장 임명, MBC 사장 문제 등 외부 이슈가 쏟아졌다. 비상계엄처럼 흔치 않은 사건이 겹치면서 참 다사다난했다.

## Q. 위원장의 말처럼 23대 집행부는 외부 이슈가 많았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CBS는 여전히 진영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제는 몇 안 남은 매체라고 생각한다. 그건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한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때로는 오해를 부르고, 수익 구조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 Q. 언론의 수익 구조 문제는 민감한 주제 아닌가.

언론과 '돈'의 관계를 얘기하면 종종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구성원들의 연봉, 근로 조건, 조직의 생존 자체가 결국 이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 Q.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무엇이었나?

2024년 총선 즈음이었다. 선방심의위가 계속해서 <김현정의 뉴스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누가 봐도 말 같지 않은 징계를 내렸다. 세 차례인가 법정 제재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내린 징계들에 대해 투쟁을 했었다.

외부를 향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결속력을 위해서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나 CBS라는 방송사가 외압이 있을 때, 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는데 '결코 타협은 없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었다. 정치적 이슈를 넘

어, CBS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 각 국에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했었는데, 부탁을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지만 예상외로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해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 CBS가 과거의 민주화 정신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노조 위원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 CBS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

## Q. 반면,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순탄하지 않았나?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았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총을 하고, 오너가 있는 회사는 자신이 경영을 잘못하면 자기 재산이 줄어든다. 그러나 CBS라는 조직은 그런 기제가 희박하다. 이사회가 있긴 하지만 좀 독특한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장이 잘못했을 경우 이를 비판하거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은 노조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회사와의 갈등도 꽤 있었다. 합리적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긴 한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노조 입장에서 이슈화가 크게 돼서 바깥으로 터진 것을 끌고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노출되어야 동력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물밑에서 협상하는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더 힘든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사장님이 아주 재밌으신 분이시다.(웃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많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 Q. 23대 집행부의 크고 작은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임금 인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부터 강조해온 부분이 바로 '임금 현실화'였다. 사실 '임금 인상'이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CBS 임금 수준은 정말 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낮았다.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래서 그냥 '올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의미로 '현실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방송이라는 산업 특성상, 인건비가 곧 콘텐츠 품질이고 경쟁력이다. 설비 투자처럼, 인재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좋은 사람을 데려오기 어렵



고, 기존 인력도 떠나게 된다. 그건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임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Q. 곧 24대 차기 노조 집행부가 선출 된다. 선임으로서 당부 한마디 한다면?

그런 건 없다. 말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웃음) 어려운 상황에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은 누가 맡는가 보다, '누가 나타나 줬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이 크다.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미안한 마음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은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광고, 협찬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 수익이 줄면, 자연히 노조가 협상할 여지도 줄어드는 구조다. 그런 국면에서 노조를 이끌어야 하니까... 솔직히 많이 어려울 것이다.

## Q. 그러면 조합원들에게도 한 말씀 해 달라.

조합원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노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CBS가 구조적으로 주인 없는 회사 같은 느낌이 있는데, 노조가 중심을 못 잡으면 진짜 힘들어진다. 왕조 시대에 '임금 이름도 모를 때가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다. 일부 조직은 조합원이 신경 쓰지 않아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다. 노조가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힘을 못 쓴다.

다들 바쁘고, 귀찮고,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발품 팔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움직여주시는 게, 결국 다 조합원 자신들의 권익으로 되돌아온다.

## Q. 임기를 마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개인적으로는 뉴미디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입사할 무렵엔 CBS가 제약 많은 매체였다. 라디오 중심이고, 플랫폼 한계도 있었다. 그런데 노컷뉴스 탄생처럼 조금씩 새 길을 만들며 확장해왔는데, 이제는 개인조차도 하나의 '방송국'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건 기회라고 본다. 국내 매체들은 시장은 좁고, 경쟁은 과열됐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AI와 기술 발전 덕분에 이 제약을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꼭 국내 독자만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영어를 못해도 자막은 시가 달아주고, 한국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꼭꼭 속았수다> 같은 드라마를 서양에서 볼 거라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뉴스나 콘텐츠를 외국에서 보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국내 청취자나 독자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한 콘텐츠도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또, CBS처럼 유연하고 슬림한 조직이 기술 변화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가진 장점과 가능성은 분명히 크다.

제작국 하효진 조합원



오목고 칼럼  
김덕기 사무국장

마지막이다.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노보에 글을 쓰는 일이. 시간을 반추해보면 2023년의 뜨거운 여름이었다. 아침 뉴스만 4년 넘게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제언이 들어왔다. "힘든 부분은 자신이 도맡겠다"며 23대 노조 위원장이 손을 내밀었다. 마치 여사친에게 고백을 받는 느낌이었다. 내게 해서는 안 될 '청(請)'이 두 번, 세 번 이어지다보니 얼떨결에 수락하고 말았다. 물론, 아침 근무로 인해 소홀했던 6살 딸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있었다. 처음은 위원장의 제안처럼 순탄했다.

노조 집행부로서 평소 마주 앉을 수 없던 경영진과 회사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국언론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굵직한 이슈들을 나누다보니 사회적 위치가 올라간 듯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오래 숨지 않았다. 지역 본부들의 고충과 간극이 큰 임금협상이 본격화되자 '속았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무국장으로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경영진의 모습,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의 사연이다. 협상을 위해 만나본 경영진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승리보다는 지지 않

으려는 소극적인 태도. 진취적, 공격적, 주도적인 분위기는 눈 씻고 찾아도 없었다. 보수적이고 방어적이었다. 방송시장을 넘어 세상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규정과 원칙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절차 준수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품의 결재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과 분노가 차올랐다. 조합원들의 각종 사연은 사무국장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노조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휴직이나 부서 이동을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하며,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털어 놓았다. 내용은 돌덩이보다도 무거웠다.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 호소와 간병고,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감 등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직원들이 많았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 저마다의 '지옥'이 있었다. 이쯤 되니 속았다는 생각을 넘어 회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아졌다. 임기 내내 노조의 역할에 대해 자문(自問)했다. 사무국장의 능력적 한계는 명확한데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회

사 발전을 위해 어디까지 노력하고 역할 할 수 있을까. 높은 현실의 벽으로 인해 기쁨보다는 좌절감, 답답함에 휩싸이며 버텼던 2년. 결국, 돌아보면 사무국장이 가장 많이 배웠다. '속았다'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 덕에 회사의 민낯, 조합원들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연대의 힘 등 값진 경험을 얻었다. 5월 30일, 노조에서 물러나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조합원과 회사 모두, 꼭꼭 속았수다!

속았수다